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담양 드론체험교육장 ‘1일 드론체험교육’ “4차 산업 조종사 나야 나!” 드론을 띄워라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에 조성된 초·중급자용 야외체험장의 모습(왼쪽)과 전문가의 드론 조종교육 모습.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제공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급속도로 바꿔놓고 있다. 무선전파로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 ‘드론’도 그 중 하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자유자재로 비행하며 촬영, 감시,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은 앞으로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드론 산업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자칫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하지만 전남 담양 드론 체험 교육장에선 이러한 고민 없이 마음껏 드론 체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산강보관리단이 운영하는 담양 드론체험교육장은 전문 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드론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총 3시간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1시간의 이론 수업과 2시간의 체험 수업으로 나뉘

진행된다. 체험에 앞서 실내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가 △드론이론 △항공법 △기기조작법 △안전사항 등을 교육한다. 드론 항공의 원리 및 드론 작동 체계뿐 아니라 연관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드론 관련 산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론 수업 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된 야외체험장에서 전문가와 안전관리요원 지도 아래 2시간에 걸쳐 드론비행강습이 진행된다. 비행강습은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눠 진행된다. 초급자용 체험장은 총 4개소로 나뉘어 있어, 동시에 4명씩 드론 조종이 가능하다. 초급자 체험에서 우수한 기기조작 능력을 보인 사람은 중급자용 체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보다 넓은 공간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조종해 볼 수 있다.

하반기 '담양 드론조종체험'은 10월까지 운영된다. 화요일~금요일은 10인 이상의 단체, 토요일에는 5인 이상의 개인·단체, 일요일에는 5~10인의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하루 두 차례 각 3시간씩 회당 최대 20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여건상 드론체험교육장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학교를 위한 출장교육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우리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riverguide.go.kr)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드론조종사: 드론을 조종하여 고공 영상이나 사진 촬영, 기사 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행조종사와 같은 까다로운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드론에 대한 관심, 드론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과 정확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소마미술관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
미술관 속 직업인 찾고 또 찾고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직업업무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 소마미술관 제공

미술관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관 하면 떠오르는 직업으로 ‘큐레이터’를 꼽는다. 전시 콘셉트를 정하고, 콘셉트에 맞는 작품을 모아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는 분명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이끌어 가는 전문 직업인 중 하나다. 하지만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외에도 다양한 직업인이 종사한다. 미술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직업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소마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소마미술관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국제 야외 조각심포지움 출품작 210여점을 비롯해 다양한 현대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소마미술관은 작품 전시 외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업무에 대해 소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를 운영한다.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탐색은 물론 예술체험까지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공인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사전교육(30분) △현장교육(20분) △사후교육(50분) △발표 및 마무리(20분)로 구성된다. 사전교육에서는 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외에도 큐레이터, 전시실 도우미, 도슨트 등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현장교육에서는 미술관 전시공간을 탐방하며 전시실 내 작품 설치 및 구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술관 직원(전시실 도우미, 도슨트 등)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다. 현장교육을 마치면 세계 유명한 미술관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화를 알아보고, 모둠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사후교육이 진행된다. 미션은 미술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학생들이 각자 미술관 직원이 되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술관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는 한편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듈별 토론을 거치며 문제해결능력도 키울 수 있다.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모듈별 전시회 개최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소마미술관의 '우리는 미술관 창의해결사'는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로 나눠 학기별로 진행된다. 참가인원은 1회 30명까지 가능하고, 체험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소마미술관 홈페이지(soma.ksp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410-1341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전시해설사: 전시관·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물 및 그를 둘러싼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역사와 배경,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해설 톨을 개발하기도 한다. 관람객이 전시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전해오는 이야기 등에 해설사의 경험을 더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설명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함께 재치 있는 유머감각도 요구된다. 근무 장소에 따라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